

2025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집

제2회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 수상작

The 2nd Sejong Children's
Environmental Poetry Collection

“배움에서 실천까지, 함께하는 환경교육”



제2회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 수상작



2025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집

제2회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 수상작

저학년부

바다 거북의 300살 생일 _ 강하리 • 15

전월산 친구들 _ 고윤 • 17

감기 걸린 지구 _ 권민율 • 18

콩이 _ 권혁준 • 19

고라니의 집 _ 김선우 • 20

귀여운 다람쥐 _ 김수연 • 21

길고양이 _ 김승주 • 22

상상의 곤충 _ 김승후 • 23

소중한 생명 _ 김시안 • 25

괴화산의 꽃들 _ 김연지 • 26

푸른 바다 거북 _ 김은채 • 27

새들의 노래, 물새들의 춤 _ 김재이 • 28

북극곰 _ 김지안 • 30



- 31 • 김지오 _ 수달을 만나러
- 32 • 노윤서 _ 숨바꼭질 대왕 장지뱀
- 33 • 박서인 _ 땅 속의 작은 천사
- 34 • 박선율 _ 금개구리의 자연 노래방
- 36 • 박지안 _ 북극곰에게 세종이가
- 37 • 백주호 _ 반딧불이 별
- 38 • 서윤 _ 자연의 오케스트라
- 40 • 송단혜 _ 작은 몸, 큰 사랑
- 41 • 안시아 _ 어디있니?
- 42 • 위유준 _ 그리운 숲속 친구들
- 44 • 유아연 _ 지구의 말을 들어주세요
- 45 • 유예록 _ 함께 살아가는 세종
- 46 • 윤빛나 _ 달팽달팽 달팽이
- 47 • 윤이나 _ 지구의 마음은
- 48 • 윤지아 _ 여행가 참새

차례

2025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집

제2회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 수상작

안녕? 오리야 _ 이로운 • 50

자연아, 사랑해 _ 이민진 • 51

아기 고라니야 _ 이시연 • 53

벚꽃비 _ 이시윤 • 54

나무 한 그루 _ 이시후 • 55

가엾은 꼬북이 _ 이아연 • 56

꿈틀이 _ 이정은 • 58

엄마 품 _ 이지율 • 59

나만 들리는 생태계 소리 _ 이채아 • 60

물고기 _ 이채윤 • 61

고마워 _ 장윤서 • 62

해바라기 _ 장현서 • 64

소나무 _ 정세하 • 65

개구리 _ 정지원 • 66

안녕 친구야 _ 정하윤 • 67



69 • 꽃 _ 조수정

70 • 동물 흉내 _ 주하성

71 • 우리 마을 스타 _ 한정우

73 • 참새는 더워 _ 한지아

74 • 가을 숲 _ 허세연

75 • 민들레 _ 허은혜

76 • 누가 살까? _ 홍지아

2025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집

제2회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 수상작

고학년부

생물과 우리의 아름다운 공존 _ 껍나을 • 78

생물 다양성 지키기 대작전 _ 구하은 • 80

벚꽃나무 _ 권다운 • 82

지구를 지켜내자 _ 권민준 • 83

초여름 밤에 _ 김다현 • 84

우리의 Dream 지구 Green 지구 _ 김서윤 • 85

보존하자, 생태계 _ 김서진 • 86

다람쥐 _ 김서호 • 88

하얀 집이 사라져요 _ 김주훈 • 89

아파요 _ 노하임 • 90

쓰레기! 다시 쓰기! <실천>! _ 류단비 • 92

지구 지킴이 _ 류영진 • 93

숲 _ 류예린 • 95



- 97 • 바다 친구가 아파요 _ 민노아
- 99 • 바다의 외침 _ 박소율
- 101 • 뜬부기 _ 박연우
- 102 • 모두 같은 생명 _ 박윤주
- 103 • 노랑부리 백로야, 고마워 _ 서현
- 105 • 수달아, 뭐 해? _ 성지완
- 106 • 이 강의 춤꾼 수달.. _ 손예진
- 108 • 북극곰아 미안해 _ 송예성
- 109 • 우리 상황은 _ 신호제
- 111 • ‘숲의 요정’ 후투티를 지키자! _ 심은서
- 113 • 어울림 _ 양예안
- 115 • 환경부 지령이 _ 연정인
- 117 • 아픈 지구 아저씨 _ 염시래
- 119 • 파란 하늘 _ 우유빈
- 121 • 짹짹 신호등 _ 유라예

차례

2025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집

제2회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 수상작

없어졌다 _ 유성민 • 123

담 너머 씨앗 하나, 꿈 하나 _ 이다빈 • 124

꿀벌 우체부 아저씨 _ 이승현 • 126

나무야 나무야 _ 이예랑 • 128

쓰레기 섬 _ 이윤슬 • 129

먹고 먹히는 관계 _ 이율리 • 130

회복 _ 이주빈 • 132

사라지고 사라지는 동물들 _ 이지아 • 133

검은 세상 _ 이진웅 • 135

불편한 편안함 _ 이하랑 • 137

바다거북 _ 임강민 • 138

숲속 지킴이 _ 임경민 • 139

안녕! 나는 지구! _ 임소민 • 140

우리, 여기, 같이 _ 전주원 • 142

민들레 꽃 _ 정나교 • 144



145 • 동생과 나의 약속 _ 주연우

146 • 더합시다 _ 차성우

147 • 조개야, 내가 지켜줄게 _ 최세연

149 • 알록달록한 지구가 좋아 _ 허하진

150 • 벚꽃나무 _ 홍세빈

151 • 비 오는 날 지렁이 _ 홍시영

152 • 푸른 도화지 _ 홍아림

부록

153 • 수상자 명단



저학년부



바다거북의 300살 생일

나루초등학교 2학년

강 하 리

오늘도 쓰러기통은

꼭꼭 차 숨이차요.

쓰러기는 바다로 흘러가고

거북과 물고기들이 아파하네요.

바다 친구들은 조용히 기다려요,

우리의 작은 손길을.

일회용 대신 다회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필요없는 건 사지않기.

모두가 한번에 할 순 없어도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모이면

넓은 바다가 웃고,

바다거북은 오래오래 춤추듯 헤엄칠 거예요.

전월산에 친구들

여울초등학교 2학년
고 윤

전월산에 가면

키다리 나무가

나를 반겨요.

알록 달록 예쁜꽃이

나에게 인사하요

꺼충꺼충 고라니가

나와 놀자하요

윙- 윙- 꿀벌이

나에게 장난쳐요.

전월산에 가면

내 친구가 많아요.

감기 걸린 지구

함밀초등학교 3학년
권민율

쿨룩 쿨룩 쿨룩 쿨룩

지구가 감기에 걸렸어.

지구가 감기에 걸려서 아프네.

우리 마음도 아프네.

지구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

열 때문에 빙하가 녹고있어.

지구야, 빨리 건강해지길

바라.

콩이

수왕초등학교 3학년

권 혁 준

콩이가 걸을 때는 찹찹찹찹

콩이가 짚을 때는 왈왈왈왈

콩이가 똥 쌀 때는 뿌직뿌직

콩이가 잠 잘 때는 쿵쿵쿵쿵

콩이가 먹을 때는 찹찹찹찹

고라니의 집

다정초등학교 2학년

김 선 우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대신 아기 고라니를 만났어요.

깜짝 놀라 눈을 마주쳤을 때

고라니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원래 내 집이 있어

새도 날고 나비도 춤추던 자리야"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 눈빛만 오래 기억했어요.

귀여운 다람쥐

대평초등학교 1학년

김수연

안경처럼

동그랗게 튀어나온 볼

구름처럼

꼬불꼬불 생긴 꼬리

깃털처럼

부드러운 털은 가진

귀여운 다람쥐

길고양이

수왕초등학교 3학년

김 승 주

길고양이는

정말 귀엽다

꼬리는 살랑살랑

귀는 푹푹

눈은 반짝반짝

츄르를 주면

폴짝폴짝 좋아하네

사람도 행복

고양이도 행복

행복도 사랑도 함께 느끼는 우리

상상의 곤충

다정초등학교 3학년

김 승 후

우리 아빠 어렸을 때
사마귀가 메뚜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사마귀를 무서워하신다.

우리 아빠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반딧불이 잡아
놀았던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아빠의 곤충이야기는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로마 신화 이야기 같다.

나에게 반딧불이는 드래곤처럼
책에서만 본 상상의 동물이다.

곤충도감에 나오는
곤충들을 잡아 관찰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수풍뎡이가
우리 아파트에 산다면
브롤스타즈 게임 보다 더 신날 텐데...

곤충은 괴롭히지 말고 밟지도 말고
곤충이 지나가면 숲에 풀어줘야지

개미, 나비, 잠자리도
멸종되면 꽃과 나무가
너무 심심할 테니까
상상의 곤충 되니까

소중한 생명

소담초등학교 2학년

김 시 안

지구에서 필요 없는 생물은 없어
왜냐하면 식물은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를 동물이 먹고
똥을 싸지
똥을 싸면 그 똥이 비료가 되고
비료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해
식물들은 모두 소중한 생명이지!

괴화산의 꽃들

나래초등학교 1학년

김연지

괴화산에는

벚꽃 민들레 꽃제비 꽃들이 있어

꽃들은 향기가 있고

아름다워

꽃들의 친구들이 오면

맛있는 꿀을 주지

사랑해

푸른 바다 거북

가득초등학교 2학년

김 은 채

푸른 바닷속

푸른 바다 거북은

언제나 열심히 헤엄을 치고

푸른 바다 거북은

옛날엔 멸종위기가 아니었다네

하지만

지금은 보기 어려워

푸른바다거북을

오래 보고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다네

푸른바다거북은

소중해

소중해

새들의 노래, 물새들의 춤

다정초등학교 3학년

김재이

우리 결연

지켜야 할 귀여운 새들이 많아요.

참새, 댕새, 황여새

짹짹, 노래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지요.

이 친구들이 없다면

봄 아침의 노래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검둥오리, 청둥오리, 논병아리

첨벙첨벙, 물살 가르며

멋지게 수영하지요.

이 친구들이 없다면

반짝이는 물결도 쓸쓸해지겠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춤추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아름답고 소중한 세상이에요.

북극곰

다정초등학교 2학년
김 지 안

북극곰은 빙하가 녹아서 힘들어요.

북극곰을 지키려면

차를 많이 안 타야 해요.

또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북극곰도 생명이 있으니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세요

북극곰아 사랑해요!

수달을 만나러

한결초등학교 1학년

김 지 오

자전거 바퀴 씹씹
바람타고 내려간 길

오순도순 헤엄치는
까아만 수달 가족

물결에 살랑 꼬리 흔들고
커다란 눈망을 반짝거리면

내 마음도 신이나
퐁퐁튀어 별빛처럼 퍼져가

이여쁜 수달아,
내가 달려올 때 마다

엄마 품 포옥 안기듯
따스히 반겨주렴

숨바꼭질 대왕 장지뱀

도담초등학교 2학년

노윤서

나는 호수공원 숨바꼭질 대왕 장지뱀이야.

나를 본 적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잘 숨거든.

왜 숨냐고?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셔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거든

나를 만나고 싶으면

안 놀랄까봐 꼬꼬리, 꼬리 흔들며 나와라

노래를 불러줘

놀라지마!

나는 귀여운 도마뱀이야.

헉,,

사람이다!

그럼 나 숨는다.

찾아봐라~!

땅 속의 작은 천사

새뜸초등학교 1학년

박 서 인

매끄러운 피부

촉촉한 피부

너는 참 젤리처럼 생겼구나

땅굴 파기 선수

오물오물 먹보 선수

똥 싸기 선수

너는 참 별명이 많구나

청소를 잘하는 친구

식물을 도와주는 친구

영양분을 주는 친구

너는 참 부지런하구나

누구일까, 누구일까,

너는 땅 속의 작은 천사 지령이

금개구리의 자연 노래방

나성초등학교 2학년

박 선 율

우리집 주방 뒷 베란다는
밤만 되면 금개구리들의
노래방이 되어요
개굴 개굴 서로 잘부르겠다고
목청높여 개굴개굴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목소리는 커도
모기도 잡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농부아저씨도 도와주는
자연을 지켜주는
소중한 금개구리
몸에는 반짝
금빛 줄무늬 두르고
오늘도 잊지않고

노래방에 찾아 오네요

깨끗한 자연노래방이

좋은 금개구리 손님들

금개구리의 노래방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자연을

소중히 지켜요

북극곰에게 세종이가

글벗초등학교 2학년
박 지 안

북극곰아 북극곰아

미안해요

얼음집을 녹게 해서 미안해요

북극곰아 북극곰아

미안해요

먹이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북극곰아 북극곰아

사랑해요

세종이가 지켜줄게 사랑해요

반딧불이 별

한결초등학교 2학년

백 주 호

반딧불이야 반딧불이야,

이슬을 먹으려 풀로 오렴

반딧불이야, 반딧불이야.

밤하늘의 여쁜 별이 되게 하늘 높이 올라가렴

하지만 이슬이 없으면

어떤 힘 으로 올라 가려나.

힘들겠지만 힘내서 올라가야지

자연의 오케스트라

새롬초등학교 2학년

서 윤

따따따따따따

나무북 두드리는

청딱따구리

원수산의 타악기

개굴 개구르

바순을 부는 듯한

금개구리는

금강변의 관악기

푸르 푸르르

빛나는 바이올린

반딧불이는

전월산의 현악기

보글 보글

지휘봉을 흔드는

흰수마자는

합강의 지휘자

따-따- 따-따-따-

다양한 생명들이

모여 부르는

세종의 오케스트라

작은 몸, 큰 사랑

수왕초등학교 3학년

송 단 혜

강아지는

말을 못하더라도 내가 슬플 때

조용히 안아줘요.

고양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내품에

살며시 누워요.

이기펭귄은

돌멩이 하나로

마음을 전해요.

동물들은 작은 몸으로

큰 사랑을 표현해요.

나는 오늘도

그 사랑을 배워요.

어디있니?

가득초등학교 2학년

안 시 아

수달아수달아 어디있니?

나는 세종강에 있어.

수달아 수달아 너의 가족들은

어디있니? 다 멸종돼고

말았어.

우리가 너의 가족들을 되찾아

줄게. 그럼 우리 모두 환경

오염을 줄이자.

어?췌! 다행이다. 엄마

아빠 만났구나?

수달아 수달아 어디있니?

그리운 숲속 친구들

나성초등학교 1학년

위 유 준

숲속 작은 나무위에
까만눈 반짝반짝 예쁜 다람쥐야
늠름하고 멋진 어흥 호라이, 귀여운 반달곰아.

어느날부터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멀리 이사갔을까?

이제 우리는
그림책 속에서만 만날 수 있나봐.
나는 그리워,
친구들이 보고싶어.

나무를 꺾지 않을게
조용히 다가가서
놀라게 하지도 않을게

친구들아, 다시 돌아와줘
편히 쉴 수 있도록
내가 숲을 지켜줄게.

지구의 말을 들어주세요.

보람초등학교 3학년
유 아 연

지구가 사람들에게 말해요
나 너무 힘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은 다 사라질거야
한번 쓰고 버리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아무도 지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친구와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멸종위기 동물이 되었어요
나도 조금씩 두려워 지고 있어요

지구가 했던 말 이 떠올랐어요

함께 살아가는 세종

소담초등학교 3학년

유 예 록

멋진 금색줄을 가진 금개구리야
내가 너희를 위해 논을 지켜줄게

멋진 무늬를 가진 수염퐁덩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불빛을 꺼줄게

멋진 물갈퀴를 가진 수달아
내가 너희를 위해 금강을 지켜줄게

세종에서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달-팍달-팍 달-팍이

나루초등학교 2학년
윤 빛 나

달-팍 달-팍 달-팍이야!

너는 왜 달-팍이니?

둥근 껍질이 달처럼 생겼어?

달-팍달-팍 달-팍이야!

너는 왜 달-팍이니?

둥근 껍질이 팍이처럼 생겼어?

둥근 껍질이 달처럼, 팍이처럼

예쁜 너의 집이구나?

달처럼, 팍이처럼

예쁜 우리집 에도 놀러올래?

지구의 마음은

반곡초등학교 2학년

윤 이 나

지구의 마음은 참 넓다.

우리가 막 괴롭히는 데도

너그러운 지구

코에 빨대박힌 거북 본 적 있니?

비닐 먹는 고래 본 적 있니?

그렇다고 너무 괴롭히면

폭발하 버릴지도

그럼 우리도 안녕,

나는 이제야 미안하한다.

여행가 참새

나성초등학교 3학년
윤 지 아

귀여운 여행가
참새

콩콩콩 콩콩콩
다양한 풀들을 채집해

참새는
재미있겠지?

참새는
신나겠지?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겠지?

참새는

귀여운 여행가

귀여운 참새는

여행가

안녕? 오리야.

새움초등학교 3학년
이 로 윤

부르릉 부르릉 빨리가는 자동차
빠르게 빠르게 달려가고 싶지만
따르릉 따르릉 조금느린 자전거
자전거 타고서 돌아가는 길에는

쭈르르 쭈르르 흐르는 물 위에
꼬박꼬박꼬박 짹짹짹 짹엄치던 오리가
조용히 물 위를 동동동동 떠있네
오늘도 반가워 쿵쿵랄라 날보내

천천히 가라고 같이놀고 싶다고
오늘도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네
자동차 타고서 빨리가고 싶던길
널 보니 오늘은 늦게가고 싶구나

자연아, 사랑해

가득초등학교 1학년
이 민 진

산에는

뱀이 꿈틀꿈틀

방아깨비가 점프 점프

나무에는

다람쥐가 뽕뽕

다람쥐 닮은 청솔모도 같이 뽕뽕

정원에는

고양이가 살금살금

달팽이가 느린느린

지렁이도 달팽이를 따라 느릿느릿

하늘에는

나비가 훨훨

잠자리가 윙윙

물에는

가재가 어푸어푸

개구리가 폴짝폴짝

내가 만난

다양한 생물들

자연아, 사랑했어

아기 고라니야

으뜸초등학교 2학년

이 시 연

살랑살랑 바람부는 가을 밤

길가에서 혼자 헤매이는

귀여운 아기고라니

“아기 고라니야, 너도 산책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렸니?”

“산이 불타서 집을 잃어버렸니?”

“내가 도토리들 다 가져와서

먹을게 없었니?”

쌩쌩 달리는 위험한 차도 말고

짹짹 속삭이고

졸졸 흐르는 강물이 있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 품으로 돌아가렴

뚜어! deer!

벗꽃비

수왕초등학교 2학년

이시윤

벗꽃이 내린다

보슬보슬

바람이 분다.

살랑살랑

내 마음은 포근하다

말랑말랑

나무 한 그루

소담초등학교 1학년
이 시 후

그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참새가 날아왔습니다

고양이가 살금살금 올라갔습니다

달랑जू가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나무는 동물의 집

가엾은 꼬북이

다정초등학교 2학년
이 아 연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알러지가 심한 내게 아주 작은
꼬북이가 나타났다.

옷 방을 차지한 꼬북이는
나처럼 학교도 안가고 매일 낮잠만 잤다
아! 부러워
놀이 시간을 숙제도 안하고
실컷 놀 수 있어 좋겠다
엄마한테 혼나는 일 없고
엄마 잔소리에 등 겁질 속으로 숨어버릴수 있어 좋겠다
아! 부러워

꼬북이 옷방에 온지 한달
꼬북이는 잘먹지도않고
눈에 눈곱이 잔뜩 끼었다

내 동생이 자꾸 만져서 그런걸까?

연우언니 놀아달라고 등껍질 눌러 스트레스 받은걸까?

아니면 내가 놀아주지않아

외로워서 그런걸까?

꼬북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꼬북이 없는 옷방은 너무 커졌고

심심 하고 슬펐다

꼬북아, 다음엔 많이 놀아줄게

정말 미안해

꿈틀이

수왕초등학교 2학년
이 정 은

깜깜한 땅속
꿈틀꿈틀 지렁이
촉촉한 땅속
꿀럭꿀럭 지렁이
뿌지직 똥싸면
촉촉한 좋은땅

엄마 품

수왕초등학교 2학년

이지울

자연은

뭐든지 다 주어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내 뱀을 건드리니까.

보이지 않지만

알수 있어요

새싹이 자라니까

나만 들리는 생태계 소리

고운초등학교 3학년

이 채 아

바스락 바스락

풀 밟는 소리

가-우-규-규

담비소리

나만 들리는 생태계 소리

친구,가족에게

전달해나

본다

함께 들리는 생태계소리

물고기

수왕초등학교 3학년
이 채 윤

첨벙첨벙

이 맑은 소리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의 옷

참 예쁘기도 하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비늘

참 눈부시기도 하네

그것은

알록달록, 반질반질한

물고기이네

고마워

다정초등학교 2학년

장 윤 서

냠냠. 맛있다.

돼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맛있는걸 못 먹을걸!

으 심심하. 어? 노랫소리가 들리네.

새 아니었으면 심심할 뻔했을걸!

우와! 멋지다!

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멋진 사파리를 못 해봤을걸!

아 귀여워라!

미어캣 아니었으면 이렇게 귀여운 동물을 못 봤을걸!

달리기 시합할래?

치타처럼 빠른 동물이 없었으면 달리기 시합을 못 했을걸!

고마워 동물 친구들아
너희 덕분에 재미있었어
항상 같이 놀아줄게
고마워.

하하바라기

나성초등학교 2학년

장 현 서

하하바라기 첫 번째 떡잎이 나을 때 나는 태어나요

하하바라기 세 번째 잎이 나을 때 나는 걸음마를 해요

하하바라기 다섯 번째 잎이 나을 때 나는 웅얼이를 해요

하하바라기 일곱 번째 잎이 나을 때 나는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요

하하바라기 아홉 번째 나을 때 나는 학교에 가요

하하바라기 열 번째 잎이 나을 때 나는 어른이 되요

하하바라기는 꽃속에 씨앗을 가득 품어요

나는 몸속에 꿈과 희망을 가득 품지요

꽃속에 씨앗을 가득품고 몸속에 꿈과 희망을

가득 품으며 싹싹 자라나는 나와 하하바라기

소나무

두루초등학교 2학년
정 세 하

푸릇푸릇 소나무

사계절 내내 푸르른 소나무

초록초록 물감을 칠했나?

푸르른 소나무

뽕뽕뽕뽕 소나무

사계절 내내 뽕뽕한 소나무

가느다란 이불은 안 춥나?

넙적 이불 없어도 씩씩한 소나무

개구리

여울초등학교 3학년
정 지원

개구리아 너는 짹을 찾으려고
매일 물고 있구나
너에 우는 소리는
참 재미있구나
너에 우는소리에
잠이 벌떡 깨는구나
바람이 살랑살랑
낙엽은 바시락
너에 우는 소리는
개굴개굴

안녕 친구야

반곡초등학교 3학년

정 하 윤

자연사관 유리문 너머 새하얀 북극곰 한 마리

안녕 친구야 인사하는 내게

아빠가 말해요 저건 박제란다

싫어요 싫어 박제된 모습은 가짜잖아요

진짜 모습이 보고 싶다며 울먹이는 내게

아빠가 말해요 우리 동네에는 반달가슴곰이 살지

그렇게 가게 된 베어트리파크

안녕 친구야 인사하는 내게

반달가슴곰이 말해요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북극곰과 회색곰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그룰라는

거무죽죽한 털 색깔에 슬퍼하고 있대요

나는 삼촌이 두 명인데 푸른 바다 거북이는 삼촌이 없대요
이 모든 게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때문이라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소리쳐요
엄마, 물은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꽃

수왕초등학교 2학년

조수정

봄바람 살랑살랑

분홍 벚꽃 활짝

노랑 개나리 활짝

꿀벌 뽁뽁 꽃잎 위에 살쩍

꿀벌 땀땀 꿀꽃 위에 짹

동물 흉내

소담초등학교 1학년

주 하 성

거북이는 느릿느릿

토끼는 깡충깡충

치타는 쌩쌩

스컹크는 뽕뽕

악어는 엉금엉금

나는 동물이 좋아

내 꿈은 동물과 같이 사는 거야

우리 마을 스타

연양초등학교 3학년
한 정 우

어느 평화로운 아침

냐옹 냐옹 무지개를 타고 나를 깨우러 온 삼색이 목소리

밥 달라고 냐옹! 같이 놀자고 냐옹!

애교 많은 삼색이는 우리마을 인기스타

햇살 가득 산책 길에서 만난 오리가족

꽂꽂꽂꽂 시끌벅적, 제천으로 공개 수업왔니?

오리 친구들은 모두 귀여운 질서왕

너희 부모님은 애국자구나

저출산 문제를 한 방 컷! 해버리니까

대가족 오리들은 우리마을 슈퍼스타

시끌벅적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꽃봉우리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미는 줄장지 도마뱀

뭐가 궁금하니? 같이 놀고싶니?

후다닥 꽃봉우리 뒤로 쏙~

숨바꼭질 하고 싶구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기 대장 줄장지 도마뱀은 우리 마을 월드스타

우리마을 스타들은 반짝 반짝 빛나는 보석

나는 스타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참새는 더워

다빛초등학교 3학년
한 지 아

나처럼 뛰어다니던 참새
오늘 만큼은 더워서 힘이 없나봐

맨날 콩콩 뛰어 다니던데
내가오면 날아다니던데

왜 계속 안 날아다니는데?
도대체 안뛰는데?

참새들은 더워
날지도, 뛰지도 못하고
집에 만 있어

이러면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
더워서 재미 없을 것 같아

가을 숲

도담초등학교 3학년
허 세 연

개구리는 개굴개굴
시냇물은 졸졸졸
나뭇잎은 사각사각

나무들이 머리카락
염색을 하네
랄랄라 빨강
랄랄라 노랑

파란 하늘
엄마와 함께 걷는 그 길
10년 뒤에도 걷고 싶네

민들레

수왕초등학교 2학년

허 은 혜

살랑살랑 봄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씨

나무아래 사알짝

시소아래 살포시

어!!!

하늘나라 까지 하늘하늘 날아가네

누가살까?

도담초등학교 2학년
홍 지 아

학교에는 누가 살까?
타다닥 그리마 살지.

놀이터엔 누가 살까?
남남 짹짹 거미 살지.

가로수에는 누가 살까?
딱딱딱 딱따구리 살지

저어기 공원에
누가 살았다 했더라?
아하!
개굴개굴 금개구리, 여기여기 살지!



고학년부



생물과 우리의 아름다운 공존

두루초등학교 5학년

곽 나 울

시원하게 마시고 버린 플라스틱 음료수통

미세플라스틱 나오네

새가 먹이로 착각해서 먹으니

소화기관 막혔네

음료수 마실 때 사용한 빨대

미세플라스틱 나오네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이지

나쁜 질병만 또 생겼네

바닷가에서 먹고 버린 과자봉지

바다에 둥둥 떠다니네

거북이가 허파리로 착각했네

맛이 없잖아 너무 숨막혀

샤워할 때 쓴 샴푸와 바디워시
미세플라스틱 나오네
바닷속 물고기들이 먹었지
우리가 먹은 생선에 미세플라스틱 들어갔네

시끄러워서 설치한 투명 방음벽
새들이 날다가 그대로 충돌하네
부딪혀서 다친 새들아 미안하네
새 충돌방지 스티커 꼭 붙일게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
환경을 보존하는 예쁜 마음
생물과 우리의 행복한 공존
생물 다양성은 미래를 여는 희망

생물 다양성 지키기 대작전

글로벌선진학교 세종창의캠퍼스 4학년

구 하 은

생물 다양성은

색색구슬목걸이

구슬하나씩 잃어버리면

끊어져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물지킴이!

“애들아! 밥 먹자!”

“많이 주세요!”

‘아잇! 맛없네? 그냥 버려야겠다’

‘왜 많이 받고 다 버리지?’

“그냥 일회용컵에 주세요”

‘다 먹었네 버려야겠다’

‘어? 텀블러에 받으면 안 되나?’

‘나갔다 와야지!’

‘아니’ 왜 불을 안 끄고 가?’

“밥은 그 정도 면 돼요”

“텀블러에 주세요”

‘스위치 꺼야지!’ “딸깍”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모이면 지구가 말하네 “고마워”

우리 함께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가자!

벗꽃나무

아름초등학교 6학년
권 다 은

따스한 봄날이 오면
가장 먼저 벗꽃 나무가 나를 반겨준다.

핑크빛이 나는 벗꽃은
나를
따스하게 반겨주었다.

꽃비가 내리는 시각
나는
벗꽃과 봄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따스하게 감싸주었다.

‘벗꽃나무야, 봄날마다 항상 고마워.’

지구를 지켜내자

함밀초등학교 5학년

권민준

플라스틱이 쌓일 때마다
지구는 땀방울을 흘리고.

자동차가 달릴 때마다
지구는 숨을 쉴수가 없다

뜨거운 지구.
이대로 두면 안돼

작은 손 모아
쓰러기를 잡고 튼튼한 다리로
길을 걸으며.

우리의 지구를
지켜내자

초여름 밤에

온빛초등학교 6학년

김 다 현

초여름 밤

금빛같이 빛나는 금개구리가

" 개굴 개굴 "

금개구리 옆에

검게 빛나는 뱀 부기가

" 뱀북 뱀북 "

뱀부기 옆에

얼룩무늬가 빛나는 맹꽁이가

" 맹꽁 맹꽁 "

셋이 하나 되어

초여름 밤 노래를 만드네

우리의 Dream 지구 Green 지구

수왕초등학교 6학년

김 서 윤

우리의 dream 지구

탄소중립이 실천되는 green 지구

우리의 dream 지구

하늘과 땅, 바다와 숲이 푸르게 빛나는 green 지구

우리의 dream 지구

북극곰과 남극 펭귄도 행복한 green 지구

사람과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dream, green 지구

보존하자, 생태계

소담초등학교 4학년

김 서 진

넌 도도새라고 아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도도새는 천적이 없어 편하게 살아.

하지만 어느 날 사냥꾼이 나타났어.

결국 도도새는 멸종되고 말지.

그런데 도도 새가 사라지자

그 섬에 있는 도도나무도 줄었어.

도도새가 있어야 번식되거든.

먹이사슬이 깨져 다른 생물까지

영향을 준 거야.

이처럼 먹이사슬의 열쇠는

누가 가진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물을 보존해야지.

우리, 같이 딱! 한마디만 외쳐보자.

보존하자, 생태계!

다람쥐

가득초등학교 4학년

김 서 호

산을 오르는데 나무가

흔들 흔들

쫄르르 다람쥐가 나타났다

또르르르 내가 도토리를

굴려 주었더니

슬금슬금 다가오다

도토리를 입에 넣고서

우다다 사진을

찍기전에 도망갔다. 흠 ㅠ ㅠ

하얀 집이 사라져요

글로벌선진학교 세종창의 캠퍼스 4학년

김 주 훈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북극.

어! 이전 땡볕 아래에서

녹는 아이스크림 꼴이 되었네.

누가 이렇게 했지?

누구의 욕심으로 이렇게 됐지?

이러면 북극곰만 멸종 되는게 아니야!

우리도 멸종 될 수 있어.

우리 같이 북극곰을 살리자.

북극을 살리자.

아-파-요

전동초등학교 6학년

노 하 임

철석철석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에

바다가 끄끙 아요.

쩍쩍

쓰레기로 막힌 땅이

숨을 쉬지 못하요.

꿀각 꿀각

비닐을 삼킨 동물들이

배를 잡고 울어요

스스스

뿌리 끝 막힌 나무가

잎을 떨며 시들어요

바다와 땅과

동물들과 나무가

입을 모아 말해요

사람들아, 제발 멈춰줘

지구가 많이 아파

쓰러기! 다시쓰기! <실천>!

수왕초등학교 6학년

류 단 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어디로 갈지 생각해 봤나요?

생활 자연 회수센터로 가지요.

분리배출을 깨끗이!해서 환경을 생각하며 다시쓰기!

분리배출을 잘 해야 북극곰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많이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왕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후변화” 분리배출의 노력을 하면되요.

학교에 서는 업사이클링 신문 패션쇼를 생각해봐요.

신문을 잘 배출하고 신나는 행사 즐겨요!

지구 지킴이

바른초등학교 6학년

류 영 진

지구가 아파요

빙하가 녹아내리고

동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지구가 아파요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흔들어 대며

자연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이대로라면

지구는 멸종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약속해요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고

낡은 양말목으로

새 가방을 만드어요

작은 노력이 모이면

동물도 우리도 그리고 지구도

웃을 거예요

숲

바른초등학교 4학년
류 예 린

숲속 한가운데
연주회가 열렸다.
지휘자는 바람.

바람이 후우! 불면
나뭇잎이 사삭사삭
가지가 흔들흔들
풀잎은 바스락바스락

바람이 호오! 불면
큰 나무는 쿵, 둥, 웅
작은 나무는 살랑살랑
풀들은 사락사락.

연주 소리를 들은

숲속 친구들

토끼도, 새도, 다람쥐도

어느새

숲 한가운데 모여

귀 기울여 앉았네

바다 친구가 아파요

글로벌선진학교 세종창의캠퍼스 4학년

민 노 아

우리가 쓰레기를 투하하고

버릴때마다 거북이가

“아아아아!”

삼푸를 많이 써도

돌고래가 “아아아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쓰레기는 분리수거 통에

쏘~옥

삼푸는 조금씩만 짜익짜익

짜면

바다친구들의 얼굴이

방긋방긋

바다의 외침

함밀초등학교 5학년

박 소 율

오늘도 바다에는
전학생이 왔네.
친구의 이름은 비닐.
모두 어색하게 인사하네.

오늘도 바다에는
친구들이 체험학습 왔네.
친구들의 이름은 플라스틱.
친구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네.

바다는 모든 친구들을 반기지만
막상 그리 행복하지는 않네
비닐은 물고기를 숨막히게 하와
플라스틱은 거북이 발을 아프게 하니까.

바다는 더 이상

그런 친구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네.

오늘도 바다는 파도를 치네.

오늘도 바다는 힘드네.

오늘도 바다는 도와달라 외치네.

땀부기

온빛초등학교 6학년

박연우

깃발처럼 사랑이는 꼬리
깨끗한 물에서만 볼 수 있어

땀복새야 땀복새야
금강에서 울지마라
네 울음 따라 물이 불어난다

땀복 땀복 땀복새야
우리가 맑은 환경 지켜줄게
그냥 이 곳에서 평생 물어줘

모두 같은 생명

부강초등학교 4학년

박 윤 주

윙윙 날아다니는 꿀벌

우리는 너무 무서워

무섭지만 해치지 않아요

모두 같은 생명이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매섭게 보며

죽이려는 사람들

그러니 입장바꾸어 생각해봐요

모두 같은 생명이니

엥금엥금 기어 다니는 개미도

스르륵 기어 다니는 뱀도

모두 다 같은 생명이니

눈 찡그리지 말고

사랑스럽게 봐주세요

노랑부리 백로야, 고마워

새롬초등학교 4학년

서현

비단결 금강 띠라

하얀 날개 펴고

노오란 부리 저어

무엇을 찾는 거니?

내가 찾은 보물은

그건 바로, 바로 너

노랑부리 백로야!

세상에 삼천마리

소중한 너를 보며

생명의 다양성의

소중함을 느꼈어

노란부리 백로야
살기좋은 세종을
아름다운 이곳을
찾아주어 고마워

수달아, 뭐 해?

집현초등학교 4학년

성 지 완

삼성천 물 반짝반짝

수달 한 마리 쓱 나왔어요.

첨벙!퐁덩

물속에서 장난을 치네요.

수달아, 뭐해?

나?물고기랑 숨바꼭질 중이야.

수달은 깔깔깔 웃고

꼬리로 물을 첨벙첨벙 튀겨요.

근데 말이야, 쓰레기 있으면

우리집이 더러워져.

그러면 나는 어디서 놀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지켜줄게!

삼성천은 우리 모두 놀이터니까!

이 강의 춤꾼 수달...

나래초등학교 6학년

손 예 진

나의 귀여운 모습을 보기 위해

내 집으로 찾아온다

나는

반짝이는 물결 위에서

오늘도 춤을 춘다

번쩍!

카메라 불빛이 터지고

찰칵찰칵

나의 예쁜 춤선을

사진 속에 담아 간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웃고

나는 꼬리를 흔들며 답한다.

나는 귀여운 이 강의 춤꾼
사람들은 나의 귀여운 춤을 보고
즐거워하는 손님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북극곰아 미안해

글로벌선진학교 세종창의캠퍼스 4학년

송 예 성

하얗고 예쁜 빙산집이 녹고있어
북극곰아 내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게
빙산이 녹지 않게 해줄게
북극곰아 내가 전기를 아낄게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다닐게

북극곰아 미안해
우리가 너의 집을 지켜줄게
멸종하지 말아줘
웃는 얼굴로 만나줘

우리 상황은

연양초등학교 4학년

신 호 제

아...

너무 더워!

태양이 불덩이처럼

머리위에 쏟아져

우리나라는

숨이 턱턱 막혀

남극은 좋겠다.

항상 시원해서

항상 얼음이있어

눈바람이 일어서

아니야,

남극도 좋지않아

빙하는 조각조각

녹아내리고

펭귄은 살 곳을 잃어.

이대로 둘 순 없어

민들레 흙씨가

흩날리듯

우리 지구도

흩어질 테니까

‘숲의 요정’ 후투티를 지키자!

글로벌선진학교 세종창의캠퍼스 4학년

심 은 서

저기 먼 나라에서 여행을
온 후투티.

독특한 깃털과 머리 깃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

땅을 콕콕 찌러 먹이를
먹는 새.

산책하며 들리는 소리 “후-후-후”
이 소리는 누가 내는 걸까?

너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

네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후투티가 웃는 금강

그곳은 곧 우리의 집이니까.

어울림

새뜸초등학교 6학년
양 예 안

숲속에 아름다운 선물을 선사하는
자연의 교향악단 새들도

넓은 들판을 누비며 포효하는
동물의 왕 호랑이도

인간의 소중한 친구들이라
곧 우리의 희망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며
푸른 바다를 아우르는
바다의 왕 고래상어도

이리저리 광활한 바다를 누비며
바닷속 해초들과 상생하는
바다거북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존재이자
곧 우리의 삶의 터전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우리들의 자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자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희망

자연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빛나는 소망

환경부 지령이

연양초등학교 4학년

연 정 인

이제 다

쉬었다!

꿈틀꿈틀

춤을 추며

일하러 가는

환경부 지령이

유령처럼

아무 소리없이

땅은 미끈미끈

터널은 매끈매끈

깨끗이 청소하는
환경부 지령이

느릿느릿
오늘도 바쁘다.

아픈 지구 아저씨

반곡초등학교 4학년

엄 시 래

나무가 많았던
초록빛 육지
돌고래도 함께 놀던
하늘빛 바다
이들을 품고 있는
지구 아저씨

기름과 빨대로
식사하는
바다 아저씨
강통과 플라스틱으로
공놀이하는
육지 아저씨

추우면 추울수록
지구 아이스크림
더우면 더울수록
지구 핫초코
변신하는
지구 아저씨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이마에는 물수건
입에는 체온계
꼭꼭 앓고 있는
지구 아저씨

파란 하늘

온빛초등학교 5학년

우 유 빈

내가 참 좋아하는 파란하늘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뿌우우아아앙!

파란하늘에 뭉게뭉게 시커만 구름을 남기고
제트기가 저 멀리 사라졌다.

빠아아앙!

파란하늘에 몽실몽실 매연을 올려보내고
자동차가 저 멀리 사라졌다.

칙칙한 회색 빛이 되어버린 나의 파란하늘
저녁이 되면 초록색, 붉은색, 핑크색, 보리색
오색빛깔 다채로운 색깔들을 보여주던
너였는데 이젠 칙칙한 회색 빛 하늘이 되었구나.

항상 나에게 멋진 풍경을 선물해주어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의 파란하늘아.

꼭꼭 신호등

글벗초등학교 5학년

유 라 예

방축천에 사는 오리 가족
이웃 마을로 소풍을 가나 봐요

아스팔트 길을 지나
도로를 건너려는데
큰일이다 !
아기 오리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다행히 경찰 아저씨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오리 가족은 무사히 길 건너기 성공

노랗게 켜진 오리 신호등에
멈춰 선 자동차들
뱅뱅 경적 대신
꼭꼭 소리로 가득 찬
보드라운 출근길 도로

오리 궁둥이는

실룩실룩

우리 입꼬리는

슬며시 올라가요

없어졌다

소담초등학교 5학년

유 성 민

옆집 메뚜기네가 없어졌다.

함께 살던 사마귀, 개구리, 참새가 없어졌다.

아랫집 연어가 없어졌다.

친구 '곰'이 슬퍼한다.

끝방에 살던 지구가 히터를 켰다.

옆방 북극곰의 침대와 가구가 녹아 없어졌다.

북극곰이 점 점 점 ...

없어진다.

나는 외롭다.

에어컨을 껐더니 지구의 히터가 꺼졌다.

사라진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친구들을 기다린다.

담 너머 씨앗 하나, 꿈 하나

아름초등학교 5학년

이 다 빈

내 마음이 숨어 있다

그 안에 씨앗 하나

살며시 꿈을 키운다.

아침 햇살 포근히 닿으면

새들은 숲 노래를 부르고

어둠이 해를 감싸 안으면

풀벌레 조용히 이야기꽃 피운다.

담 넘어 마음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

세상을 만들어간다.

내 마을에 심어 놓은
씨앗 하나, 꿈 하나
마치 장미꽃처럼 어여쁜 꽃으로
피어난다.

희망이 자란다.

꿀벌 우체부 아저씨

다정초등학교 4학년
이 승 현

꿀벌 우체부 아저씨!

꽃가루 좀 옮겨주세요.

저희 아들이 아파요.

꽃가루 좀 옮겨주세요.

은방울꽃 아주머니가

창백하게 흰 얼굴로 부탁해요.

꿀벌 우체부 아저씨!

꽃가루 좀 옮겨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요.

꽃가루 좀 옮겨주세요.

장미 아가씨가 부끄러운 듯

빨강게 얼굴을 붉히며 부탁해요.

아이고, 힘들어라 요즘에 너무 덥네.

빨리 벌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나무야 나무야

수왕초등학교 4학년
이예랑

나무야 나무야

뭐하니?

응, 나는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고있어.

나무야 나무야

가만히 있으니

심심하지 않니?

나는 심심하지 않아.

난 즐겁게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면

나도 즐겁거든.

쓰레기 섬

수왕초등학교 5학년

이 윤 슬

태평양 한 가운데
알록달록 섬이 하나 있다.

알록달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섬
얼룩덜룩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섬

계속해서 커지는 섬
사라지지 않는 섬

우리가 자랄수록
쓰레기 섬도 점점 커져 간다.

먹고 먹히는 관계

아름초등학교 5학년

이 율 리

먹는 존재와

먹히는 존재는

그 자리에서만 위치가

다를 뿐

대론 먹는 존재가

먹히게 되고

먹히는 존재가

먹혀야 한다.

하지만 먹히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면?

먹는 존재들 또한 하나 둘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에
먹히고 먹을 수 있다.

결국 함께 하기에 살아있으니까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회복

여름초등학교 5학년
이 주 빈

푸른 하늘을 지나는 철새들
집을 잃고 헤메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행복의 날개를 만듭니다.

나무 한 그루, 물 한방울, 마음 한 조각
서로 기대고 돌보며
숲속의 어둠이 걷히고
그들의 소리가 돌아오면
지구의 숨소리를 되찾고
서식지를 살리는 손길로
자연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사라지고 사라지는 동물들

반곡초등학교 4학년

이 지 아

사라져가는 동물

이상한 날씨

이것의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

동물은 계속 사라지고

기온은 계속 오르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플로깅

분리수거 등

많은 방법이 있지.

우리가 이 방법을
잘 실천한다면
미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검은 세상

아름초등학교 6학년
이진웅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
그 많았던 쥐
주꼬리 잘라 학교 가져가면
최고의 자랑거리
지금은 먼 이야기 같다

어렸을 적 엄마가 사주신 햄스터 보고
“왜 쥐를 키우는 거냐?” 하신
할머니 말씀이 이해가 된다

공기 맑아 개울물 먹고
개구리 잡아 구워 먹고
가재 잡아 도랑 치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이야기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다

악취 나는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탁한 공기로 새장 안에 갇힌 듯 답답한 새들
맑았던 금강에는 검은 두루미만 돌아다닌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던 시대는 가고
서로에게 두려운 존재로만 남았다

불편한 편안함

수왕초등학교 4학년

이 하 랑

너무 더워 1도 내렸어

지구는 1도가 올라갔어

모두가 차를타고 매연을 뿜어

지구는 숨쉬기가 힘들어졌어

일회용품을 썼어

지구는 몸살을 앓아

우리는 편함

하지만 지구는 불편함

바다거북

보람초등학교 4학년

임강민

모래 위 알 속, 꿈틀꿈틀

바다거북 깨어나요.

햇살이 뜨거워 수컷은 어디?

암컷 친구들만 깜짝 등장

바다야, 지켜줘

모래야, 지켜줘

에어컨 끄고, 부채로 살랑살랑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릉타릉

거북이 친구들 즐겁게 헤엄치게

모두 함께 지구온도 지켜요.

숲속 지킴이

보림초등학교 4학년

임 경 민

파랑새가 파란 하늘을 날아요.

깨끗하고 맑은 하늘에서

끼익끼익 노래를 불러요.

복숭아 꽃이 활짝 웃어요.

빨갧빨갧 분홍미소 고아요.

초록 언덕 푸른 소나무

숲을 지켜주니 든든하.

우리는 모두 숲속 지킴이

작은 손길 모아 큰 숲을 살려요

더 푸른 세상 만들어요.

안녕! 나는 지구!

해밀초등학교 4학년

임 소 민

안녕! 나는 지구야.

나는

땅과 바다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어.

나에게는

들판에서 뛰는 사슴,

놀고 있는 토끼,

물을 마시는 하마,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도 있어.

근데 그거 아니?

내 옷에 있는 동물 친구들이

서서히

나를 떠나고 있어.

내가 아프고 열이 나고 있거든.

너희가 도와주면
난 괜찮아
너희가 발 벗고 나서서
내 친구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니?

우리, 여기, 같이

새움초등학교 6학년

전 주 원

엄마와 함께 걷는 길
길 위에 참새 한 마리
저쪽에 작은 고양이
산책로 그 길 작은 길
노래하는 동물 친구들

친구와 함께 걷는 길
길가에 작은 물고기
그 곁엔 하얀 두루미
동네 길 걷는 길
먹이 찾는 작은 동물들

참새는 짹짹 짹짹
종달새 종알 종알
고양이 야옹 야옹
강아지 멍멍 멍멍
듣기 좋은 친구들 소리

혼자가 아닌 길, 다 함께
외로움 없는 길, 다 같이
하나가 둘 괴도 셋 되어
마음으로 걷는 세종 길
우리, 여기, 같이

민들레 꽃

수왕초등학교 4학년

정 나 교

길가에 꽃이나 피었다.

그 꽃 이름은 민들레

길가에서 나와 세상 구경한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또 짓밟혀도

굳세게 버티며 살아간다.

어느날 색이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더니 어떤아이 다가와 나를

뽑았다. 그리고 아이는 나를 '후'

하고 불었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으로

날아가 새로운 시작을 했다.

동생과 나의 약속

대평초등학교 5학년

주연우

내동생은 맨날 쓰레기를 바닥에 획획!

내동생은 편식쟁이 음식을 남겨요 획획!

나는 말했어요

“지구가 아프대

바다가 아프대

그러니까 이제 그만 획획!”

동생은 삐졌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지구를 지키자”

오늘보다 깨끗하게

내일은 남김없이

획획!

더합시다

보람초등학교 4학년

차 성 우

대한민국 6만가지 생물친구

더합시다.

한국에서 보기 힘들어진 소똥구리 금개구리...

더합시다.

다양한 친구들을 위해

우리애 작은실천

더합시다.

기후재앙 오기전에,

소중한 친구들 다 사라지기 전에

환경사랑 더 합시다.

조개야, 내가 지켜줄게

다정초등학교 4학년

최 세 연

바다에서 헤엄치며 발견한 빛조개

내가 좋아하는 조개

하지만

움직이지않는 나의 조개

조개야, 조개야 죽었니 살았니?

입을 굳게 닫아 열지 못하는 조개

너무나 궁금해 갯벌로 나와 바닷물을

조심조심 부었다.

조금씩 조금씩 조개껍질 사이로

나오던 조만한 발이 살았다고 꿈틀꿈틀 거린다

살아보겠다고 인간 힘을 쓰며

갯벌을 파고드는 널 보며,

마음이 아파

나는 너를 놓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개야, 잡히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

나는 너를 생각하며
바다를 지켜줄게.

알록달록한 지구가 좋아

글벗초등학교 6학년

허 하 진

지구는 알록달록 크레파스 같아

파란하늘, 초록 산 속에

노랑색 담비, 갈색 수달

초록색 개구리, 하얀 황새

그리고, 알록달록 나비...

모두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지구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크레파스의 색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지구는 원래 알록달록 했는데...

우리는 색이 없어지지 않게

지구를 지켜주어야해

지구가 원하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되는 것이 아닌

지구를 돌보는 손길을 내밀어주는 것이니까

벗꽃나무

수왕초등학교 4학년

홍 세 빈

벗꽃나무야! 너는 왜 다른 꽃들 보다 일찍피니?

그야 수분을 일찍하려고, 앗! 이게뭐지? 동그라미에

흰색이 있고 핑크색도 있네? 이게뭐지? 바로!

벗꽃잎이야! 아!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어도 심심하지 않니?

나는 심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거든. 바람, 햇살, 새, 나뭇가지, 풀, 새싹
등...

친구들이 많아!

정말 안 심심하겠다!!

벗꽃나무는 !!

비 오는 날 지렁이

전동초등학교 6학년

홍시영

비 오는 날

살짝 얼굴 내미는 지렁이

흙 속을 파고들며

땅을 보송보송 숨 쉬게 하지,

지렁이가 지나간 자리

식물은 더 튼튼하게 자라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지렁이 몸을 아프게 하지.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말기,

분리수거 잘하기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렁이와 지구가 함께 웃을 거야

푸른 도화지

새뜸초등학교 6학년

홍 아 림

모난 곳 하나 없이 깨끗했던 푸른 도화지
성한 곳 하나 없이 건강했던 푸른 도화지

나무는 초록색을 입히고
강물은 푸른색을 흘러보내고
구름은 하얀색을 물들어
지구라는 이름으로 완성했가네.

하지만 검은 먹물이 번지듯
우리의 손이 그 위를 덮을 때
지워지지 않는 얼룩만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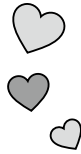
푸른 도화지의 색은 아직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은다면
그 푸름을, 다시 지킬 수 있다.



부록
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작품명
시장상	이다빈	아름초등학교 5학년	담 너머 씨앗 하나, 꿈 하나
교육감상	박윤주	부강초등학교 4학년	모두 같은 생명
시의회의장상	김다현	온빛초등학교 6학년	초여름 밤에
세종시마루낭독회장상	이진웅	아름초등학교 6학년	검은 세상
	전주원	새롬초등학교 6학년	우리, 여기, 같이
백수문학회장상	류예린	바른초등학교 4학년	숲
	유라예	글벗초등학교 5학년	팩팩 신호등
세종시환경교육센터장상	곽나을	두루초등학교 5학년	생물과 우리의 아름다운 공존
	구하은	글로벌선진학교 4학년	생물 다양성 지키기大作전
	권다은	아름초등학교 6학년	벚꽃나무
	권민준	해밀초등학교 5학년	지구를 지켜내자
	김서윤	수왕초등학교 6학년	우리의 Dream 지구 Green 지구
	김서진	소담초등학교 4학년	보존하자, 생태계
	김서호	가득초등학교 4학년	다람쥐
	김주훈	글로벌선진학교 4학년	하얀 집이 사라져요
	노하임	전동초등학교 6학년	아파요
	류단비	수왕초등학교 6학년	쓰레기! 다시 쓰기! <실천>!
	류영진	바른초등학교 6학년	지구 지킴이
	민노아	글로벌선진학교 4학년	바다 친구가 아파요
	박소율	해밀초등학교 5학년	바다의 외침
	박연우	온빛초등학교 6학년	뚝부기
	서현	새롬초등학교 4학년	노랑부리 백로야, 고마워

구분	이름	소속	작품명
세종시환경교육센터장상	성지완	집현초등학교 4학년	수달아, 뭐 해?
	손예진	나래초등학교 6학년	이 강의 참곤 수달...
	송예성	글로벌선진학교 4학년	북극곰아 미안해
	신호제	연양초등학교 4학년	우리 상황은
	심은서	글로벌선진학교 4학년	‘숲의 요정’ 후투티를 지키자!
	양예안	새뜸초등학교 6학년	어울림
	연정인	연양초등학교 4학년	환경부 지령이
	염시래	반곡초등학교 4학년	아픈 지구 아저씨
	우유빈	온빛초등학교 5학년	파란 하늘
	유성민	소담초등학교 5학년	없어졌다
	이승현	다정초등학교 4학년	꿀벌 우체부 아저씨
	이예랑	수왕초등학교 4학년	나무야 나무야
	이윤슬	수왕초등학교 5학년	쓰레기 섬
	이율리	아름초등학교 5학년	먹고 먹히는 관계
	이주빈	으뜸초등학교 5학년	회복
	이지아	반곡초등학교 4학년	사라지고 사라지는 동물들
	이하랑	수왕초등학교 4학교	불편한 편안함
	임강민	보람초등학교 4학년	바다거북
	임경민	보람초등학교 4학년	숲속 지킴이
	임소민	해밀초등학교 4학년	안녕! 나는 지구!
	정나교	수왕초등학교 4학교	민들레 꽃
	주연우	대평초등학교 5학년	동생과 나의 약속
	차성우	보람초등학교 4학년	더합시다
	최세연	다정초등학교 4학년	조개야, 내가 지켜줄게
	허하진	글벗초등학교 6학년	알록달록한 지구가 좋아
	홍세빈	수왕초등학교 4학년	벚꽃나무
	홍시영	전동초등학교 6학년	비오는 날 지령이
	홍아림	새뜸초등학교 6학년	푸른 도화지

저학년부

구분	이름	소속	작품명
시장상	서윤	새롬초등학교 2학년	자연의 오케스트라
교육감상	홍지아	도담초등학교 2학년	누가 살까?
시의회의장상	이민진	가득초등학교 1학년	자연아, 사랑해
세종시마루낭독회장상	김선우	다정초등학교 2학년	고라니의 집
	송단혜	수왕초등학교 3학년	작은 몸, 큰 사랑
백수문학회장상	고윤	여울초등학교 2학년	전월산 친구들
	이지울	수왕초등학교 2학년	엄마 품
세종시환경교육센터장상	강하리	나루초등학교 2학년	바다 거북의 300살 생일
	권민율	해밀초등학교 3학년	감기 걸린 지구
	권혁준	수왕초등학교 3학년	콩이
	김수연	대평초등학교 1학년	귀여운 다람쥐
	김승주	수왕초등학교 3학년	길고양이
	김승후	다정초등학교 3학년	상상의 곤충
	김시안	소담초등학교 2학년	소중한 생명
	김연지	나래초등학교 1학년	괴화산의 꽃들
	김은채	가득초등학교 2학년	푸른 바다 거북
	김재이	다정초등학교 3학년	새들의 노래, 물새들의 춤
	김지안	다정초등학교 2학년	북극곰
	김지오	한결초등학교 1학년	수달을 만나러
	노윤서	도담초등학교 2학년	숨바꼭질 대왕 장지뱀
	박서인	새뜸초등학교 1학년	땅 속의 작은 천사
	박선율	나성초등학교 2학년	금개구리의 자연 노래방
	박지안	글벗초등학교 2학년	북극곰에게 세종이가
	백주호	한결초등학교 2학년	반딧불이 별
	안시아	가득초등학교 2학년	어디있니?
	위유준	나성초등학교 1학년	그리운 숲속 친구들
	유아연	보람초등학교 3학년	지구의 말을 들어주세요
	유예록	소담초등학교 3학년	함께 살아가는 세종

구분	이름	소속	작품명
세종시환경교육센터장상	윤빛나	나루초등학교 2학년	달팽달팽 달팽이
	윤이나	반곡초등학교 2학년	지구의 마음은
	윤지아	나성초등학교 3학년	여행가 참새
	이로운	새움초등학교 3학년	안녕? 오리야.
	이시연	으뜸초등학교 2학년	아기 고라니야
	이시윤	수왕초등학교 2학년	벚꽃비
	이시후	소담초등학교 1학년	나무 한 그루
	이아연	다정초등학교 2학년	가엸은 꼬북이
	이정은	수왕초등학교 2학년	꿈틀이
	이채아	고운초등학교 3학년	나만 들리는 생태계 소리
	이채윤	수왕초등학교 3학년	물고기
	장윤서	다정초등학교 2학년	고마워
	장현서	나성초등학교 2학년	해바라기
	정세하	두루초등학교 2학년	소나무
	정지원	여울초등학교 3학년	개구리
	정하윤	반곡초등학교 3학년	안녕 친구야
	조수정	수왕초등학교 2학년	꽃
	주하성	소담초등학교 1학년	동물 흉내
	한정우	연양초등학교 3학년	우리 마을 스타
	한지아	다빛초등학교 3학년	참새는 더워
	허세연	도담초등학교 3학년	가을 숲
	허은혜	수왕초등학교 2학년	민들레